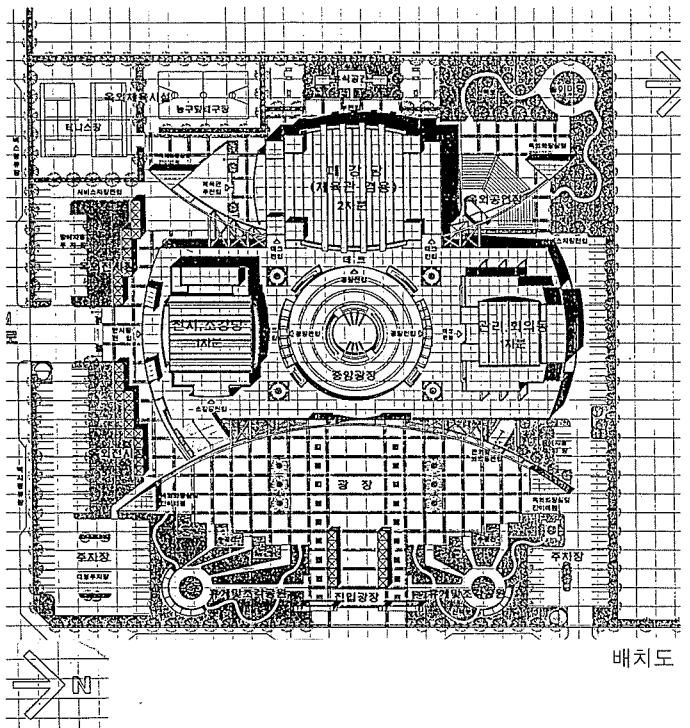


모형도

우수작

금림종합건축
(김태원 + 김정호 + 윤중현)

대지면적 / 33,000㎡
 건축면적 / 6,347.36㎡
 연면적 / 7,570.00㎡
 건폐율 / 19.28%
 용적률 / 18.34%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철골조
 외장재료 / 화강석,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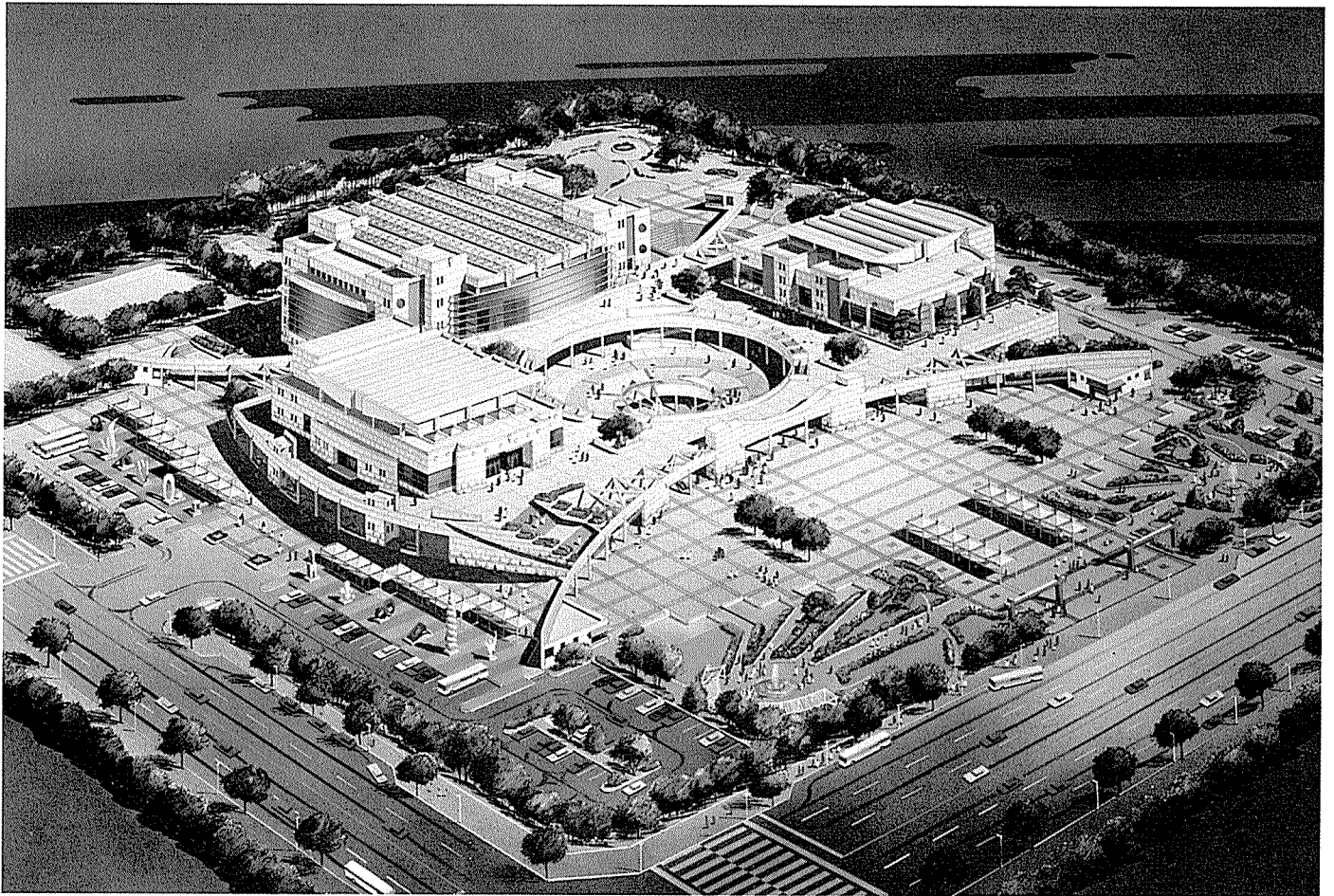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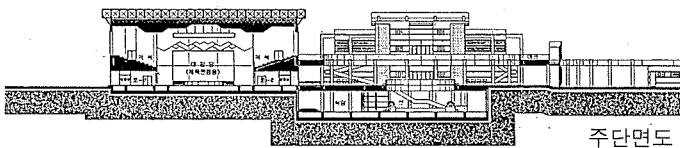
문화회관의 건립은 다양한 문화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인간적 표현을 연출하면서 상징성도 제고할 수 있는 문화공간, 도심속의 공원을 이룰 수 있는 문화공간을 연출하는데 계획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목표를 계획안에 일관성 있게 건축언어로 투영시키기 위해 모든 도형의

근본이며 모태인 원과, 점증적 표현을 연출할 수 있는 수평선을 조형개념으로 출발하였다.

건물군을 크게 대강당, 전시/소강당, 관리/회의동 3군으로 배치하였다. 이렇게 배치하게 된 배경으로는 1만평 가까이 되는 대지위에 단일 건물군으로의 외소함을 탈피함이 그 첫째이고, 설계 지침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1, 2차 연차 공사의 전제가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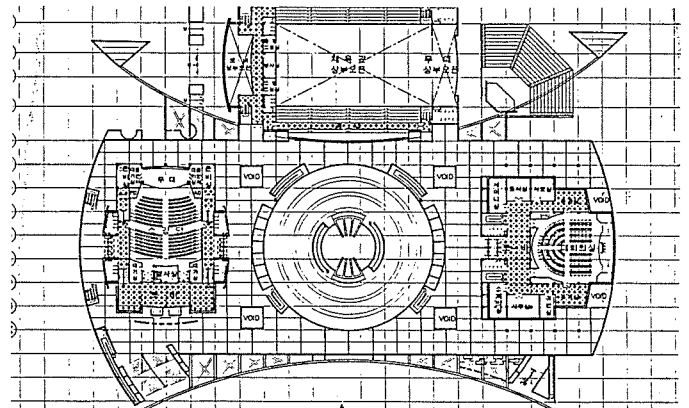
주단면도

둘째이며, 기능적, 구조적 연계성이 셋째 이유였다. 분리된 3개군의 수평, 수직동선의 합리적 체계 확립과 관람 동선의 단순화, 시설이용의 편의성, 공간의 다양성을 위해 지하에는 선근을 1층에는 피로티, 2층에는 데크를 조성하였고, 구심점적인 역할의 연출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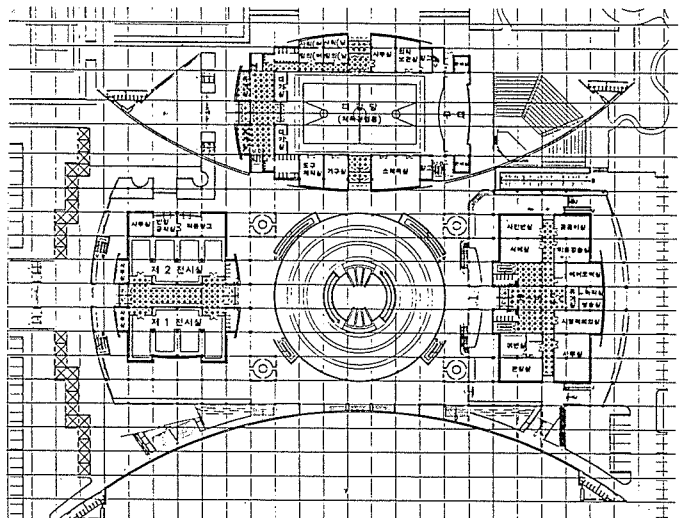
대강당은 지붕위의 트러스와 전면 곡면유리의 구성에 의한 긴장감을 수평띠를 이용 완화 승화시키고 이를 화강암 기반으로 받치게 하여 안정감을 갖게하였다. 전시/소강당은 날아갈듯한 지붕과 출입구의 곡면도입으로 대강당과의 연계도를 시도하였으며, 관리/회의동 역시 다양한 입면 전개로 친근감 있는 건물이 되게 하고 매스의 곡면에 의한 형태의 통일성을 추구하였다. 크고 작은 광장과 휴게공간, 옥외 전시장, 옥외 체력단련장등을 도로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주공간에 접근하는 매개시간과 전위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아울러 1층 피로티를 이용 다양한 행사를 수용하게 하였으며, 각각의 외부공간은 건물의 주공간과 기능적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중앙 선근 하부에 식당을 배치함으로써 각 건물군들과 기능적 순응을 유도하였으며, 지하와 일층을 연결하는 수공간의 연출로 다이내믹한 공간으로 관객 및 시민들을 포용하게 한다. 반원 기벽을 전, 후면에 배치하여 긴장감과 방향성을 유도하고 그 기결점에 간이매점과 옥외화장실을 4개소 설치함으로써 각 외부공간(옥외 전시장, 휴게 및 조각공원, 옥외 체력단련장, 옥외공연장 등)의 활용성을 극대화 하였다. 진입구에 천정을 덮을 수 있는 구조물은 그 자체로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며,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고 구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